

# 중학생의 또래소외감과 이원적 자아존중감 간의 상호관계\*

최창용\*\* · 이주연\*\*\* · 신유미\*\*\*\*

## 초 록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발달 산물로서, 이론적으로 두 변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을 다룬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두 변인 간의 상호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고 일방향적인 관계만을 확인해왔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또래소외감과 자아존중감 간의 종단적인 상호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1차년도와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또래소외감과 이원적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자기가치 및 자기비하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중학교 1학년 시기의 또래소외감, 자기가치, 자기비하는 중학교 3학년 시기의 각 변인과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또래소외감과 자아존중감 간의 교차지연 효과를 살펴보면, 또래소외감은 이후의 자기비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기가치와 자기비하는 이후의 또래소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인 자기가치 및 자기비하 간의 교차지연 효과 분석 결과, 자기가치가 이후의 자기비하에 미치는 영향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와 함께 우리나라 청소년의 또래소외감을 감소 및 예방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하였다.

**주제어: 또래소외감, 자아존중감, 자기가치, 자기비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 본 논문은 2015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학원생 자유주제로 구두발표한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제1저자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수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교신저자, enpaix@snu.ac.kr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교신저자, ym0211@gmail.com,

## I. 서론

아동기를 벗어나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중학생 시기에는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는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발달 과업을 잘 성취하면 청소년기와 이후 성인기 행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이소희, 도미향, 정익중, 김민정, 변미희, 2005). 다수의 기존 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를 청소년 발달의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 왔으나, 이 두 변인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다.

이론적으로 청소년기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설명된다. 자아존중감의 대표적 연구자 Rosenberg는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산물(social product)인 동시에, 사회적 힘(social force)임을 강조하였다(Elliott, 2006; Gecas, 2006). 소시오미터 이론(sociometer theory)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의 수용 및 소외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Leary, 2001). 한편, 자아존중감은 자아의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에 따라 대인관계에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Baumeister, 1997), 대인관계 능력과 대처 기술에도 영향을 미친다(Cameron, MacGregor & Kwang, 2013; Murray, Rose, Bellavia, Holmes & Kusche, 2002). 이처럼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는 서로에 대한 예측요인이자 결과로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또는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등 일방향적인 관계만을 확인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의 상호관계를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또래관계의 역동과 그로 인한 결과 중에서 또래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에 주목하여 자아존중감과 상호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청소년들의 따돌림이나 소외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4년도에 수행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따돌림 문제는 학교폭력 유형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SNS 등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집단따돌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따돌림 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이창호, 신나민, 하은빈, 2014). 전국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는 집단따돌림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아동이 전체의 약 6.7%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봉주

외, 2013). 그러나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집단따돌림 피해 청소년만이 아니라 또래관계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는 청소년까지 고려할 경우, 관심의 대상은 크게 확대된다. 의미 있는 사회적 유대감이 사라질 때 느끼는 소외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위협 상태이다(Cacioppo & Patrick, 2008). 특히 청소년기는 또래관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시기로(조성연 외, 2008), 심각한 괴롭힘과 폭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또래관계 내에서 미묘한 갈등과 차별에 의해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동·청소년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또래소외감은 실제 친구 수, 또래관계의 질과도 높은 관련을 보이며(최외선, 김지선, 2001; Sankey & Huon, 1999), 성인기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bson, 2003).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또래소외감이라는 변인에 주목하여, 또래소외감과 자아존중감의 상호관계를 검증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가 이원적 구조를 가진다는 가정에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인 자기가치(self-worth)와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인 자기비하(self-deprecation)가 또래소외감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확인하였다. 자아존중감은 개념적으로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를 모두 포함하며(Rosenberg, 1989), 측정 도구 역시 긍정적인 문항들과 부정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에는 부정적인 문항의 결과를 역산하여 전체 자아존중감 측정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를 담도록 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가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이 통계적으로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이미리, 2005; 정병삼, 2010; Ang, Neubronner, Oh & Leoung, 2006; Farruggia, chen, Greenberger, Dmitrieva & Macek, 2004; Owens, 1994). 이에 본 연구는 자기가치와 자기비하로 구성된 이원적 자아존중감 개념을 활용하여, 단일 요인의 자아존중감에서는 간과되거나 파악할 수 없었던 변인 간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인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 간의 상호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또래소외감과 이원적 자아존중감 간의 상호관계를 확인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삶의 경험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언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1

코호트 1차년도와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또래소외감, 자기가치 및 자기비하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1. 중학교 1학년 시기의 또래소외감, 자기가치, 자기비하는 중학교 3학년 시기의 또래소외, 자기가치, 자기비하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중학교 1학년 시기의 또래소외감은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자기가치 및 자기비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자기가치 및 자기비하는 중학교 3학년 시기의 또래소외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의 또래소외감과 자아존중감

#### 1) 청소년의 또래소외감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는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또래관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좋은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에 기여하지만(Bagwell & Schmidt, 2013),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경험하거나 적절한 또래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삶은 물론 성인기 이후에까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Asher, Rose & Gabriel, 2001; Mcdougall, Hymel, Vaillancourt & Mercer, 2001). 이에 많은 청소년 연구들에서 또래관계가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좋은 또래관계의 선행요인에 대해서 확인하여 왔다.

그러나 또래관계의 영향력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고, 그를 통해 실천적인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또래관계의 역동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결과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다양한 또래관계의 역동에 대한 응답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또래관계를 조작화하고 있으며(안수영, 이형실, 2009; 정미선, 2010),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또래 역동에 대한 응답은 역채점한 후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문은식, 2014; 박태희, 이경희, 2014; 양숙경, 문혁준, 2012). 그러나 기존 연구의 접근은 또래관계의 구체적인 역동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결과의 영향력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은 또래관계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에서 수행된 한 종단연구에서는 우정(friendship)과 또래관계에서의 거부(rejection)가 각기 다른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심리적 적응의 지표들과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Bagwell, Schmidt, Newcomb & Bukowski, 2001). 한국 등 5개국 청소년의 사회화 국제비교연구에서는 배려, 친밀, 의존, 소외의 네 영역에서 친구관계를 분석하였다(문경숙, 김현철, 김지연, 민경석, 2008). 그 결과, 배려, 친밀, 의존 영역의 점수는 높고 소외 영역의 점수는 낮았던 미국 청소년이나 배려, 친밀, 의존 영역의 점수는 낮으면서 소외 영역의 점수는 높았던 일본 청소년과 달리, 한국의 청소년은 5개국 중 친밀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음과 동시에 소외 영역의 점수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또래관계를 단순하게 좋고 나쁨의 연속선상에서 확인하면서 좋은 또래관계와 좋은 발달 산물 간의 정적 상관관계만을 강조하던 접근의 한계를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또래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에 주목하고 있다. 소속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보편적이며 근본적인 욕구로서, 욕구 충족의 실패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반응 역시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Cacioppo & Patrick, 2008; Leary, 2001). 따라서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개입은 또래집단으로부터의 거부(rejection)나 집단적인 괴롭힘(victimization) 등의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노출된 이들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또래집단에서의 부정적 경험들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는 아동·청소년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Robson, 2003).

소외감(alienation)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분리 또는 차단되었다는 느낌이나, 그들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인식을 의미한다(Calabrese & Adams, 1990). 또한 또래소외감은 또래애착의 하위 영역으로 또래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Armsden & Greenberg, 1987). 청소년기에는 또래를 주요 대상으로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데(Freeman & Brown, 2001; Laible, Carlo & Raffaelli, 2000), 가깝게 지내는 또래와의 정서적인 결속이 약할 경우 또래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Armsden & Greenberg, 198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소외감을 부정적인 또래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개인이 지각하는 분리와 관계의 소원함의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래소외감은 또래관계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지만, 실제 또래관계와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은 또래소외감이 친한 친구의 수,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정도와 괴롭힘이나 따돌림의 피해, 또래관계에서의 거부의 경험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최외선, 김지선, 2001; Robson, 2003; Sankey & Huon, 1999). 즉, 청소년의 또래소외감은 단순히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부정적인 또래관계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또래소외감은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Asher et al., 2001; Mcdougall et al., 2001). 또래로부터 소외당한다는 것은 청소년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 환경에서 부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Asher et al., 2001), 또래소외의 경험은 슬픔, 외로움, 수치심, 당혹감, 사회적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한다(Leary, Koch & Hechenbleikner, 2001). 또한 또래애착의 하위요인으로서 또래소외감은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Bosacki, Dane, Marini & Ylc-Cura, 2007), 사회적 위축과 비행행동(Buist, Dekovic, Meeus & van Aken, 2004), 사회적 분노(Bosacki et al., 2007)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는 아동과 청소년의 장기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의 한 추적연구에 따르면 10세 때의 또래소외 경험은 23세와 28세 시기의 사회적, 정서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gwell et al., 2001). 영국의 종단연구(Robson, 2003)에서도 10세 때 측정된 또래소외는 29세의 심리적인 건강과 사회적 지지, 교육수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obson의 연구(2003)에서 또래소외는 아동 본인이 평가한 또래로부터의 소외감으로 측정되어, 소외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발달상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족, 친구, 사회와의 관계에서의 전반적인 소외감이 우울과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이은숙, 2007)가 있었으나, 또래소외감이 청소년의 삶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연구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의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89).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유능성과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이자(Coopersmith, 1967), 개인적 평가의 긍정성 정도(Baumeister, 1997)로 정의되기도 한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그 자체로 좋고 바람직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사건들의 영향을 완충(buffer) 및 보호(protect)하고, 긍정적인 발달산물의 달성을 촉진(boost)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Zeigler-Hill, 2013).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삶의 질(황혜원, 2011), 건강행동(이상균, 2015), 학업성취(박현선, 정익중, 권은선, 2011)와 사회적 관계(강경훈, 최수미, 2013) 등의 긍정적인 발달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우울 및 자살 사고 등의 정신건강 문제의 감소(신혜정, 정익중, 이상아, 이향연, 박재연, 2014)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의 이원적 구조를 가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Rosenberg(1989)는 개념적으로 자아존중감이 긍정적 자기평가와 부정적 자기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하였고, 그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자아존중감이 단일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에 따라서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들을 역채점하여 합산하였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더욱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Owens(1994)는 Rosenberg, Schooler and Schoebach(1989)의 연구와 동일한 연구모형, 동일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분석하면서,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인 자기 평가인 자기가치(self-worth)와 부정적인 평가인 자기비하(self-deprecation)라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어진 청소년 발달 관련 연구들에서도 자아존중감의 이원적 구조를 적용한 연구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원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근거가 축적되어가고 있다(Ang et al., 2006; Farruggia et al., 2004; Greenberg, Chen, Dmitrieva & Farruggia, 2003).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이원적 자아존중감을 적용한 연구모형이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이미리, 2005; 정병삼, 2010; Farruggia et al., 2004). 청소년 연구에 있어서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개념

을 적용할 경우, 단일 차원의 자아존중감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Owens, 1994).

## 2. 또래소외감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적 관계

### 1) 또래소외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적 특성은 자아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자신에 대한 타인의 반응과 평가는 자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Baumeister, 1997), 자아존중감 역시 사회적 인정, 수용, 지위, 평판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Baumeister, 1997; Leary & Baumeister, 2000). Harter(1993)는 ‘관계적 자기가치(relational self-worth)’라는 용어로, Mruk(2006)의 경우 ‘가치를 인정받는 존재(being valued)’라는 용어로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보고하였다.

특히 소시오미터 이론(sociometer theory)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수용 및 배제를 드러내는 지표(meter)이다(Leary et al., 2001).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통합 또는 소외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자아존중감의 형성 및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Leary & Baumeister, 2000; Leary et al., 2001). 대인관계와 소속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체계로 다른 동기체계와 마찬가지로 결핍을 느꼈을 때 불쾌함이 유발되고 충족되었을 때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데, 사회적 관계에 대한 동기의 결핍에 따른 정서적인 반응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이 나타나게 된다(Leary, 2001). 또한 인지적으로도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적으로 소속감, 친밀감, 통합성을 느낄 때 자신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되었다고 느낄 때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Asher et al., 2001; Denissen, Penke, Schmitt & Van Aken, 2008).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인 또래관계는 자아존중감의 형성 및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또래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인지적, 정서적 과정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또래 소외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

## 2)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이 아동·청소년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지는 이유는 자아존중감이 여러 긍정적인 발달 결과들을 예측하기 때문인데,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Baumeister, 1997; Elliott, 2006; Gecas, 2006). 자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으로, 자아의 집행기능을 통해서 개인은 의사결정, 행동의 개시, 환경 속에서의 자신을 통제한다(Baumeister, 1997).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관계에서 적응적인 행동을 하고 대인 관계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대인관계의 능력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적응적인 인지적 해석을 통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룬다(Murray et al., 2002). 또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그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식하지만,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매력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유능하다고 인식한다(Cameron et al., 2013).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용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들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고, 친구관계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김은경, 김홍숙, 김순규, 2013; 안수영, 이형실, 2009).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관계의 소외나 배제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자신의 긍정적인 성격이나 특성에 집중하는 자기강화 전략이나,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자기보호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소외나 배제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Sommer, 2001).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에는 대인관계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자성 예언에 따라서 대인관계의 부정적인 결과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Downey, Freitas, Michaelis & Khouri, 1998).

요컨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할 경우에는 이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함으로써 이후의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또래관계의 경험 가능성이 낮으며, 부정적인 또래관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3) 또래소외감과 자아존중감의 상호 영향 연구의 필요성

이처럼 또래소외감과 자아존중감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므로, 두 변인 간의 상호적인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두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일방향적으로 설정하여 검증하고 있다. 정익중(2006, 2007) 역시 우리나라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이론적으로는 상호적인 영향을 가정함에도 불구하고, 자료 또는 연구방법의 한계로 두 변인을 일방향적인 원인, 결과 관계로 살펴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전반적인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왔지만, 또래소외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래관계는 다양한 역동을 통해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또래관계를 광범위하게만 다루어 온 것이다.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이해하고, 더욱 명확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또래관계의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또래관계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또래소외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원적 자아존중감 가설을 수용하여 또래소외감과 자아존중감 간의 역동을 보다 자세히 확인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 1) 연구대상

연구의 자료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에 의하여 전국대표성을 갖도록 설계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이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중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1차년도(2010년) 자료와 3차년도(2012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조사와 3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2,259명의 응답내용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연

구 대상자 2,259명 중 50.5%(1,140명)는 남학생이고 49.5%(1,119명)는 여학생이었다.

## 2. 측정도구

### 1) 자아존중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대표적인 자아존중감 척도인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5개 문항(문항번호 1, 3, 4, 7, 10)은 긍정적인 자기 평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다른 5개 문항(문항번호 2, 5, 6, 8, 9)은 부정적인 자기 평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원적 자아존중감 가설에 따라, 긍정적인 내용의 5문항은 자기가치를 측정하고, 부정적인 내용의 5문항은 자기비하를 측정한다고 본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긍정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가치 수준이 높고 부정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비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가치를 측정한 5문항의 내적신뢰도(Cronbach's alpha)는 1차년도(2010년)에 .828, 3차년도(2012년)에 .829로 나타났으며, 자기비하를 측정한 5문항의 내적신뢰도(Cronbach's alpha)는 1차년도(2010년)에 .755, 3차년도(2012년)에 .753로 나타났다.

### 2) 또래소외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서는 부모또래애착(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을 변안한 척도를 통해 또래애착을 측정하고 있으며, 또래애착은 상호신뢰, 의사소통, 소외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 척도 중 소외 영역의 문항들로 또래소외감을 측정하였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IPPA 척도는 2자 관계에서의 애착관계보다는 또래집단과의 관계경험을 측정하는 것으로 애착의 조작적 도구로는 부적합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최영희, 김민선, 서영석, 2012).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1인의 친구에 대한 애착 정도가 아니라, 전반적인 또래관계에 있어서의 소외 정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해당 척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래소외감 척도는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래소외감을 측정한 3문항의 내적신뢰도(Cronbach’s alpha)는 1차년도(2010년)에 .625, 3차년도(2012년)에 .765로 나타났다.

###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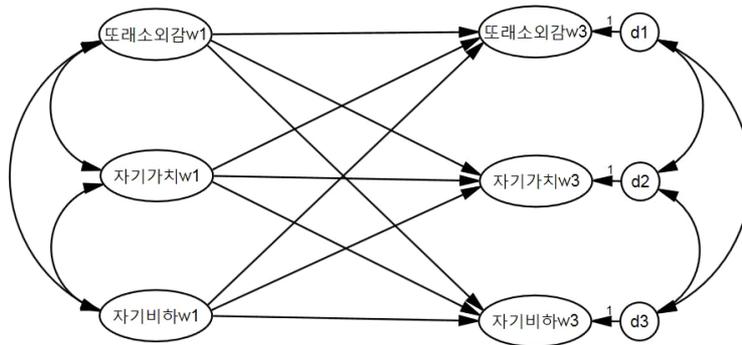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자기회귀모형(autoregressive model)의 핵심은 t시점의 값이 이전 시점인 (t-1)시점의 값에 의해 설명되어진다는 것으로, 이전 시점(t-1) 종속변수 값을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수가 t시점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에 있다(이은주, 정익중, 2009;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이는 횡단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의 인과관계 문제를 일정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은 이러한 자기회귀모형을 다변량모형으로 확장시켜 두 변인간의 상호지연효과(cross-lagged effect)를 추정하는 것으로(홍세희 외, 2007),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인 또래소의

감과 자아존중감의 상호관계를 확인하기에 적절한 모형이라 판단하여, 이를 본 연구의 연구모형으로 삼았다.

연구모형의 분석은 Bollen(1989, Kline, 2010 재인용)이 제시한 2단계 접근법에 따라, 측정모형을 확인한 뒤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동일한 잠재변수를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종단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각 시점의 잠재변인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한다는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across time)이 확보되어야 한다(Taris, 200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측정동일성의 검증을 진행하였다.

모형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인  $\chi^2$  검증 방법과 함께 CFI, TLI, RMSEA를 통해 판단하였다. 모형적합도 수용기준은 표본크기가 250 이상이고 관측변수가 12개 이상 30개 미만인 경우,  $\chi^2$ 의 p값은 유의할 것으로 기대되며, CFI 또는 TLI가 .92이상이고 RMSEA가 .07이하여야 한다는 Hair, Black, Babin, Anderson and Tatham 등(2006)의 권장기준을 따랐다. 추정방법은 13사례(0.58%)의 결측치 처리를 위해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를 사용하였다. FIML은 한 변수의 결측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다른 결측치 처리방법보다 정확하게 결측치를 추정한다는 장점이 있다(Arbuckle, 1996).

통계적 검증은 기술통계분석에서는 SPSS 21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서는 Amos 21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측정변수의 평균은 대부분 대략 2점~3점, 표준편차는 1 미만으로 나타났고, 모든 변수가 적정 왜도 및 첨도의 분포를 나타내어 정규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대부분 0.7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1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

	또래소외감(1차)	자기가치(1차)	자기비하(1차)	또래소외감(3차)	자기가치(3차)	자기비하(3차)
또래소외감(1차)	1.000					
자기가치(1차)	-.393(.012)	1.000				
자기비하(1차)	.525(.016)	-.666(.014)	1.000			
또래소외감(3차)	.287(.015)	-.122(.011)	.192(.014)	1.000		
자기가치(3차)	-.267(.011)	.564(.010)	-.405(.012)	-.214(.011)	1.000	
자기비하(3차)	.288(.013)	-.383(.011)	.448(.014)	.474(.014)	-.520(.011)	1.000

※ 모든 변수  $p < .001$ 임. 괄호 안에 제시한 표준오차와 p값은 공분산에 보고됨

## 2. 연구모형의 적절성 평가

### 1) 측정모형의 적합도 평가 및 모형수정

먼저 본 연구의 모든 잠재변수 간 관계를 상관관계로 설정한 모형(full path correlation model)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설정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2080.802$  ( $df=284$ ,  $p < .001$ ), TLI=.898, CFI=.918, RMSEA=.053, 그리고 RMSEA에 대한 90% 신뢰구간은 .051 ~ .055로 산출되었다. Hair et al.(2006)이 제시한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는 기준에 따르면, RMSEA의 적합도지수 수용 기준(RMSEA < .07)은 충족했지만 TLI가 .898, CFI가 .918로 제시된 기준(TLI, CFI).9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낮다면 모델수정을 고려해봐야 하는데,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값을 통해 척도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각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측정변수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의 결과를 보면, 자기비하의 8번 문항('나는 나를 좀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이 1차년도(-.007)와 3차년도(.103)에서 모두 눈에 띄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때 가장 낮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내는 관측변수를 순차적으로 제거하여 모형적합도의 개선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배병렬, 2014), 본 연구에서는 요인부하량이 가장 낮은 자기비하 8번 문항을

제외하는 것으로 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 모형의 모형적합도는  $\chi^2=1310.048$  (df=237,  $p<.001$ ), TLI=.936 CFI=.949 RMSEA=.045, 그리고 RMSEA에 대한 90% 신뢰 구간은 .042 ~ .047로 Hair et al.(2006)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적합도가 확인되었다. 처음 제시한 측정모형과 자기비하의 8번 문항을 삭제한 수정모형의 적합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  $\chi^2$  차이검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 ( $\Delta\chi^2 = 770.754$ ,  $\Delta df=47$ ,  $p<.001$ )임이 확인되어 자기비하 8번 문항을 제외한 수정 모형을 채택하였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별 적합도 비교

모형	$\chi^2$	TLI	CFI	RMSEA
수정 전	2080.802 (df=284), $p<.001$	.898	.918	.053
수정 후	1310.048 (df=237), $p<.001$	.936	.949	.045

## 2) 측정모형 검증

잠재변수의 종단적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across time)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 측정변수의 잠재변수에 대한 요인부하량 계수가 각 시점에서 동일하다고 제약한 모형(측정모형2)과 제약하지 않은 모형(측정모형1)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측정모형1의 적합도는  $\chi^2=1310.048$  (df=237,  $p<.001$ ), TLI=.936 CFI=.949 RMSEA=.045이고, 측정모형2의 적합도는  $\chi^2=1373.438$  (df=246,  $p<.001$ ), TLI=.935 CFI=.947 RMSEA=.045로,  $\chi^2$  차이검정 결과,  $\Delta\chi^2= 63.390$  ( $\Delta df=9$ ,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측정동일성 검증에 있어서도  $\chi^2$  검증은 표본크기가 큰 경우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정확하지 않는 결과가 보고될 수 있으므로 다른 모형적합도의 값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홍세희 외, 2007).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LI, CFI, RMSEA에서는 모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측정동일성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구조모형 검증을 진행하였다.

표 3  
측정모형 적합도 비교

모형	$\chi^2$	TLI	CFI	RMSEA
측정모형1	1310.048 (df=237), $p < .001$	.936	.949	.045
측정모형2	1373.438 (df=246), $p < .001$	.935	.947	.045

### 3)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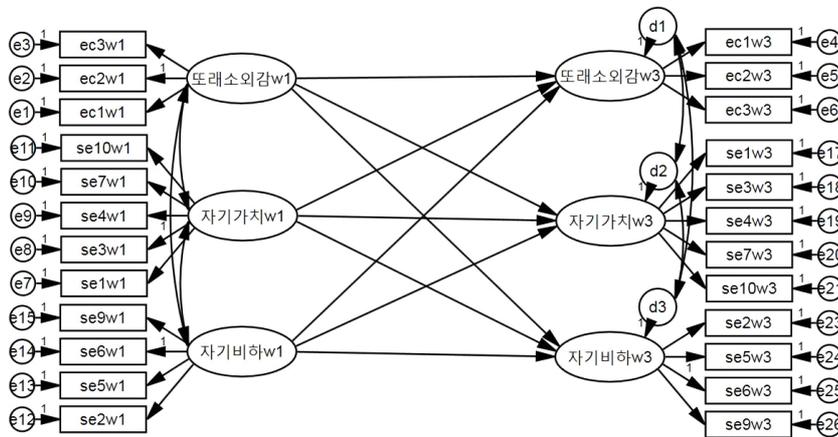


그림 2. 연구의 구조모형

표 4와 같이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chi^2$  통계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와 ( $\chi^2=1310,048$ ,  $df=237$ ,  $p < .001$ ) 표본공분산행렬과 모형공분산행렬이 같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chi^2$  통계량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모형을 판단해야 한다.  $\chi^2$  통계량을 제외한 적합도 지수는 Hair et al.(2006)이 제시한 수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구조모형에 대한 모형적합도 지수

모형	$\chi^2$	CFI	TLI	RMSEA
구조모형	1310.048 (df=237), p<.001	.936	.949	.045

### 3. 변수 간의 관계 추정 결과

구조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추정된 모수의 값과 유의도 검증 결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1차년도 또래소외감, 자기가치 및 자기비하가 3차년도 동일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서로 다른 변수가 교차하면서 이후 시점에 미치는 영향은 1차년도 또래소외감이 3차년도 자기비하에, 1차년도 자기가치가 3차년도 자기비하에 미치는 영향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변수 간 관계 추정 결과

변수 간 관계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S.E.	C.R.	p
또래소외감3 ← 또래소외감1	.276	.259	.038	7.242	***
자기가치3 ← 자기가치1	.529	.526	.036	14.665	***
자기비하3 ← 자기비하1	.281	.316	.034	8.151	***
자기가치3 ← 또래소외감1	-.036	-.044	.024	-1.460	0.144
자기비하3 ← 또래소외감1	.060	.064	.030	2.044	0.041
또래소외감3 ← 자기가치1	.040	.030	.049	0.813	0.416
또래소외감3 ← 자기비하1	.076	.076	.042	1.829	0.067
자기비하3 ← 자기가치1	-.174	-.149	.040	-4.309	***
자기가치3 ← 자기비하1	-.025	-.032	.028	-0.873	0.383

\*\*\*p<.001

표 5에서 제시한 추정 결과를 연구 모형과 함께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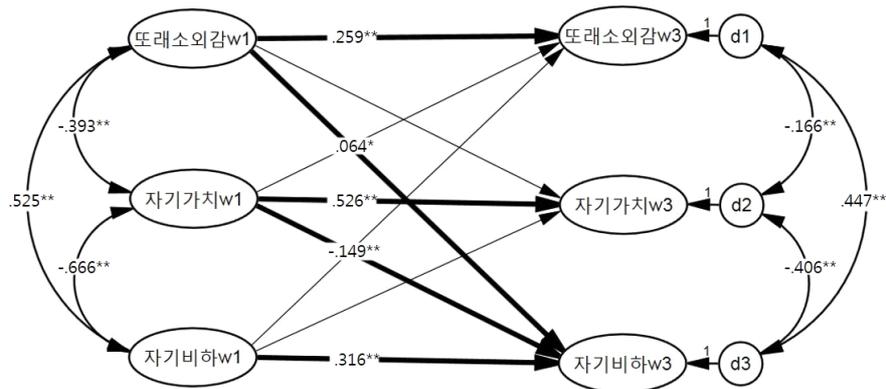


그림 3. 구조모형의 주요 결과

중학교 1학년 시기의 또래소외감, 자기가치, 자기비하가 중학교 3학년 시기의 또래소외감, 자기가치, 자기비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차년도 또래소외감 수준이 높을수록 3차년도의 또래소외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 = .259, p < .001$ ). 즉, 중학교 1학년에 높은 수준의 또래소외감을 경험한 청소년은 중학교 3학년에도 높은 수준의 또래소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을 보면, 1차년도의 자기가치 수준이 높을수록 3차년도 자기가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526, p < .001$ ), 1차년도의 자기비하 수준이 높을수록 3차년도의 자기비하 수준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 = .316, p < .001$ ). 요약하면, 중학교 1학년 시기의 또래소외감, 자기가치, 자기비하 수준이 높을수록 중학교 3학년 시기의 또래소외감, 자기가치, 자기비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또래소외감과 자아존중감 각각의 자기회귀 효과가 확인되었다.

또래소외감과 이원적 자아존중감 간의 교차지연 효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또래소외감이 자아존중감(자기가치, 자기비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1차년도 또래소외감은 3차년도 자기가치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beta = -.044, p > .05$ ), 3차년도 자기비하 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beta = .064, p < .05$ ). 반면 자아존중감(자기가치, 자기비하)이 또래소외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1차년도 자기가치( $\beta$

=.030,  $p > .05$ )와 1차년도 자기비하( $\beta = .076$ ,  $p > .05$ ) 모두가 3차년도 또래소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요약하면, 또래소외감과 이원적 자아존중감 간의 교차지연 효과는 또래소외감이 자아존중감 중에서도 자기비하에 미치는 영향에서만 확인되었다. 즉 시간적 변화를 고려한 영향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또래소외감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또래소외감은 자아존중감 중에서도 자기비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가치와 자기비하 간의 교차지연 효과를 살펴보면, 1차년도 자기가치는 3차년도 자기비하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beta = -.149$ ,  $p < .001$ ), 1차년도 자기비하가 3차년도 자기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032$ ,  $p > .05$ ). 이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재조정이 긍정적인 자기평가의 향상을 가져오지는 않으나, 긍정적인 자기평가의 향상은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감소시키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V. 논의 및 함의

본 연구는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여 또래소외감과 자아존중감의 종단적인 상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이원적 자아존중감 가설을 수용하여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인 자기개념인 자기가치(self-worth)와 부정적인 자기개념인 자기비하(self-deprecation)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그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우선 우리나라 중학생의 또래소외감과 자기가치, 자기비하는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또래소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의 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된다는 것이다. 중학교라는 동일한 학교급 내에서 1학년 때 또래소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의 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중학교 과정 내내 어려움을 안고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높은 또래소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학교 1학년 시기의 또래소외감이 3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의 이원적 구성에 따라서 다르게 확인되었다. 1학년 시기의 또래소외감

은 3학년 시기의 자기비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또래소외감과 자기가치 간에는 종단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래소외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로부터의 수용 및 배제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소시오미터 이론의 가정을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Leary et al., 2001). 이에 더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또래소외감은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저해하기 보다는, 자기를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비하하게 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낮춘다는 것을 보여준다.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원적으로 적용한 Blankertz 등의 연구(1999; Ang et al., 2006 재인용)는 부정적인 정서와 스티그마는 자기비하와 관련되는 반면, 성취와 삶의 만족도는 자기가치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Harter(1999)와 Robinson(1995)은 또래로부터의 수용(acceptance)은 자기가치를 향상시킴으로서 자아존중감의 자원으로서 기능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자기비하보다는 자기가치와 강한 관계를 보이며, 부정적인 또래관계는 자기가치보다는 자기비하와 강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대인관계의 질과 자아존중감 등의 자기 개념을 전반적으로만 파악해왔던 기존 연구들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좋은 또래 관계와 긍정적인 자기 개념 간의 단순한 정적 상관관계는 다수의 연구들을 통하여 상당히 공고하게 확인되어 왔다. 이제는 또래관계의 특정한 역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자아존중감의 이원적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보다 정밀하고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자아존중감은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또래관계와 그로 인한 심리적 결과를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 또래소외감은 자기비하의 증가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반면, 자기가치와 자기비하는 모두 이후의 또래소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이 청소년기 여러 발달 산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확인되면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발달의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높은 자아존중감이 모든 상황, 모든 변인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Mruk, 2006). 정익중(2006)은 종단연구를 통하여 자아존중감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행행동의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 Baumeister 등의 연구(2003)는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는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자아존중감에 사회적인 힘이 없다는 결론으로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앞으로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대상, 환경, 변인에 대한 정밀한 연구들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의 이원적 영역 간의 교차지연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기가치는 이후의 자기비하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비하는 이후의 자기가치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또는 정서적 경험은 부정적인 인식 또는 정서적 경험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긍정 정서의 확장 이론(broaden and build theory)에 따르면, 긍정 정서의 경험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범주를 확장시키고 심리적 자원을 증가시킨다(Fredrickson, 2001). 또한 긍정 정서의 경험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확장되고 유연해진 사고의 폭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다양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도 보고된다(Isen, 2002). 이전 시기의 자기가치가 이후의 자기가치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이후의 자기비하를 낮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긍정적인 인지 및 정서를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해준다. 요컨대,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측면인 자기가치와 부정적인 측면인 자기비하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위해서는 자기가치의 향상과 자기비하의 감소가 동시에 필요하며, 그 중 자기가치의 향상은 자기비하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효과가 보다 확장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실천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먼저 또래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의 사회복지실천과 학교 환경에 대한 개입은 따돌림, 괴롭힘 등의 가시적인 위협을 경험하는 청소년들만을 주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의 주요한 발달과업인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매우 제한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대표성을 가지는 조사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중학생의 또래소외감은 중학교 과정 내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개인의 지각이지만 실제의 부정적인 관계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며(최외선, 김지선, 2001; Robson, 2003; Sankey & Huon, 1999),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관계로부터의 소외감은 자아존중감의 발달도 저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두 가지 중요한 발달과업인 좋은 사회적 관계와 자기 개념의 발달을 위해서는 또래소외감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개인 내적 자원만으로 또래관계의 역동과 그로 인한 영향을 변화시키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외부적인 자원과 지지의 제공이 필요하다. 자아존중감의 사회적 힘을 확인한 연구들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서 대인관계의 질이 달라진다고 설명하지만(Cameron et al., 2013; Wood, Hogle & McClellan, 2009),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중학생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또래 집단에서의 역동 변화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항상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Baumeister et al., 2003)과 일맥상통한다. 자아존중감이 다양한 긍정적인 발달산물을 촉진하는 개인 내적 자원임은 분명해 보이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또래소외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의 소외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이라는 개인 내적 자원을 증진하는 것에 기대기보다, 교실 내 또래관계에 대한 교사의 개입, 학교 환경의 변화,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소외라는 집단 역동 자체를 제거하기 위한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래소외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는 자아존중감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또래소외감은 자기가치보다는 자기비하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또래소외감을 느끼는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실천은 자기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입보다는 또래소외감으로 인해 높아진 자기비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또래소외감이 자기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소외감을 느끼는 청소년의 자기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치의 향상은 그 자체로서 전반적인 자아존중감 향상을 의미하며, 본 연구 결과 1학년 시기의 높은 자기가치는 이후의 3학년 시기의 자기비하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소년기 또래소외감으로 인해 낮아진 자아존중감 회복을 위해서는 자기비하를 낮추는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자기가치를 증진시키는 개입이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소외감과 이원적 자아존중감 간의 중

단적인 상호작용을 단일한 연구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론적으로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 간에 상호적인 영향관계가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모형 또는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일방향적인 관계만을 검증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관계의 상호영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전국 대표성을 가지도록 수집된 종단자료를 통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다양한 또래관계 역동으로 인한 결과 중 또래소외감에 초점을 맞추어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의의가 있다. 또래소외감이라는 구체적인 부정적 또래관계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해석과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원적 자아존중감 가설을 수용하여 자아존중감을 자기가치와 자기비하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중학생들에게도 자아존중감의 이원적 구조가 통계적으로 적합하게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또래소외감이 자아존중감의 이원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며, 두 요인간의 교차지연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또래소외감 간의 상호적인 관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에 기여하였으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하게 수행되는 후속 연구와 실천적 개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들도 가진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학교 1학년 코호트 자료에서는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을 격년으로 측정하고 있어 본 연구가 수행되는 시점에는 3개 시점 이상의 자료를 포함하는 모형을 설정할 수 없었다. 향후 패널 조사 결과의 공개에 따라서, 보다 확장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청소년기의 또래소외감과 자아존중감의 상호 영향 관계를 더욱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또래소외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었으므로, 두 변인 이외의 변인들은 분석 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을 포함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경훈, 최수미 (2013). 청소년의 심리내적 및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관계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71, 55-85.
- 권석만 (2008). **긍정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은경, 김홍숙, 김순규 (2013).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0(8), 303-324.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경숙, 김현철, 김지연, 민정석 (2008).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II**(연구보고 08-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은식 (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구조적 관계. **인간발달연구**, 21(2), 23-36.
- 박태희, 이경희 (2014).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3), 353-361.
- 박현선, 정익중, 권은선 (2011). 아동의 학업성취 발달궤적의 예측요인과 발달산물. **한국아동복지학**, 34, 64-94.
- 배병렬 (2014). **Amos 21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 신혜정, 정익중, 이상아, 이향연, 박재연 (2014). 청소년의 우울,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사회복지**, 27, 25-50.
- 안수영, 이형실 (2009).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1(3), 163-176.
- 양숙경, 문혁준 (2012). 가족기능,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2), 115-130.
- 이미리 (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6(2), 263-293.
-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유조안, 유민상, 최창용 외 (2013). **쉽게 알아보는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 이상균 (2015).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건강행위 잠재계층유형과 예측요인. **사회과학**

- 연구, 26(1), 251-271.
- 이소희, 도미향, 정익중, 김민정, 변미희 (2005). **청소년복지론**. 경기: 나남출판.
- 이은숙 (2007). 남·여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에 관한 예측모형. **대한간호학회지**, 37(4), 576-585.
- 이은주, 정익중 (2009). 청소년 비행과 일탈적 자아개념의 상호적 인과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2), 191-221.
- 이창호, 신나민, 하은빈 (2014).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14-R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미선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문화포럼**, 25, 140-170.
- 정병삼 (2010). 부모-자녀애착과 부모지도감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4), 5-30.
- 정익중 (2006). 자아존중감과 청소년비행 간의 상호적 영향. **사회복지연구**, 31, 133-159.
-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과정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 조성연, 유진아, 박은미, 정철상, 도미향, 길은배 외 (2008). **청소년복지론**. 서울: 창지사.
- 최영희, 김민선, 서영석 (2012). 한국판 청소년또래애착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273-296.
- 최외선, 김지선 (2001). 환경변인에 따른 초등학교의 소외의식에 관한 연구. **자원문제 연구논문집**, 20(1), 131-140.
-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21(1), 129-143.
- 황혜원 (2011).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체계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3), 1-26.
- Ang, R. P., Neubronner, M., Oh, S. A., & Leong, V. (2006). Dimensionality of rosenberg's self-esteem scale among normal-technical stream students in Singapore. *Current Psychology*, 25(2), 120-131.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 Marcoulides, & R. Schumac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pp.243-277).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Asher, S. R., Rose, A. J., & Gabriel, S. W. (2001). Peer rejection in everyday life. In M. R. Leary (Ed.), *Interpersonal rejection* (pp.105-14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gwell, C., Schmidt, M., Newcomb, A., & Bukowski, W. (2001).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91, 25-50.
- Bagwell, C. L., & Schmidt, M. E. (2013). *Friendship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Guilford Press.
- Baumeister, R. F. (1997). The self.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New York: McGraw Hill.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1), 1-44.
- Bosacki, S., Dane, A., Marini, Z., & YLC-CURA. (2007). Peer relationships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ts: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Emotional and Behavioural Difficulties*, 12(4), 261-282.
- Buist, K. L., Deković, M., Meeus, W., & van Aken, M. A. (2004).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early adolescent attachment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Journal of Adolescence*, 27(3), 251-266.
- Cacioppo, J. T., & Patrick, W. (2008). *Loneliness: Human nature and the need for social connectio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Cameron, J., MacGregor, J., & Kwang, T. (2013). Badge of honor or mark of shame: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signal. In V. Zeigler-Hill (Ed.), *Self-esteem*. New York: Psychology Press.
- Calabrese, R. L., & Adams, J. (1990). Alienation: A cause of juvenile delinquency. *Adolescence*, 25(98), 435-440.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Vol. 23). San Francisco:

WH freeman,

- Denissen, J. J., Penke, L., Schmitt, D. P., & Van Aken, M. A. (2008). Self-esteem reactions to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1), 181.
- Downey, G., Freitas, A. L., Michaelis, B., & Khouri, H. (1998). The self-fulfilling prophecy in close relationships: Rejection sensitivity and rejection by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545.
- Elliott, G. C. (2006). The self as social product and social force. In T. J. Owens, S. Stryker, & N. Goodman (Eds.), *Extending self-esteem theory and research* (pp.10-2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rruggia, S. P., Chen, C., Greenberger, E., Dmitrieva, J., & Macek, P. (2004). Adolescent self-esteem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testing measurement equivalence and a mediation model.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6), 719-733.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226.
- Freeman, H., & Brown, B. B. (2001). Primary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Differences by attachment sty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6), 653-674.
- Gecas, V. (2006). The self as a social force. In T. J. Owens, S. Stryker, & N. Goodman (Eds.), *Extending self-esteem theory and research* (pp.85-10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eenberger, E., Chen, C., Dmitrieva, J., & Farruggia, S. (2003). Item- wording and the dimensionality of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6), 1241-1254.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Vol. 6).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 Harter, S. (1993). Causes and consequences of low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self-esteem. In R. F. Baumeister (Ed.), *Self-esteem* (pp.87-116).

- New York: Springer.
- Harter, S.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Guilford Press.
- Isen, A. M. (2002). Missing in action in the AIM: Positive affect's facilitation of cognitive flexibility, innovation, and problem solving. *Psychological Inquiry*, 13(1), 57-65.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Laible, D. J., Carlo, G., & Raffaelli, M. (2000).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1), 45-59.
- Leary, M. R. (2001).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interpersonal rejection. In M. R. Leary (Ed.), *Interpersonal Rejection* (pp.3-2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ary, M. R., & Baumeister, R. F. (2000). The nature and function of self-esteem: Sociometer theor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2, 1-62.
- Leary, M. R., Koch, E. J., & Hechenbleikner, N. R. (2001). Emotional responses to interpersonal rejection. In M. R. Leary (Ed.), *Interpersonal Rejection* (pp.145-14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cDougall, P., Hymel, S., Vaillancourt, T., & Mercer, L. (2001). The consequences of childhood peer rejection. In M. R. Leary (Ed.), *Interpersonal Rejection* (pp.213-24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ruk, C. J. (2006). *Self-esteem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Toward a positive psychology of self-esteem*. New York: Springer.
- Murray, S., Rose, P., Bellavia, G., Holmes, J., & Kusche, A. (2002). When rejection stings: How self-esteem constrains relationship-enhancement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3), 556-573.
- Owens, T. J. (1994).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Reciprocal effects of positive self-worth and self-deprecation on adolescent problem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3), 391-407.

- Robinson, N. S. (1995). Evaluating the nature of perceived support and its relation to perceived self-worth in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5(2), 253-280.
- Robson, K. (2003). Peer alienation: Predictors in childhood and outcomes in adulthood. *Working Papers of the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paper 2003-21). Colchester: University of Essex.
- Rosenberg, M.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Middletown: Wesleyan University Press.
- Sankey, M., & Huon, G. F. (1999). Investigating the role of alienation in a multicomponent model of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Adolescence*, 22(1), 95-107.
- Sommer, K. (2001). Coping with rejection: Ego defensive strategies,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M. R. Leary (Ed.), *Interpersonal Reje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aris, T. W. (2000). *A primer in longitudinal data analysis*. New York: Sage Publications.
- Wood, J. V., Hogle, A., & McClellan, J. C. D. (2009). Self-esteem and relationships. In H. T. Reis, & S. Sprecher (Eds.), *Encyclopedia of Human Relationships* (Vol. 3) (pp.1422-1425). New York: Sage Publications.
- Zeigler-Hill, V. (2013). The importance of self-esteem. In V. Zeigler-Hill (Ed.), *Self-esteem*. New York: Psychology Press.

## ABSTRACT

###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peer alienation and self-esteem among South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Choi, Changyong\* · Lee, Juyeon\* · Shin, Yumi\*

In theory terms at least, peer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the two most important developmental outcomes in adolescence, have a reciprocal relationship. However, most previous research has failed to examine the bidirectional influence between these variables.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longitudinal effects of each on the other, using the 7th grade cohort's data (n=2259) of the 2010 and 2012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auto-regressive and cross-lagged effects of peer alienation and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self-worth and self-deprecation, between the first and third year of middle school. The auto-regressiv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s of peer alienation, self-worth, and self-deprecation in the first year wa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levels of each variable in the third year. The results of cross-lagged effects suggested that peer alienation positively influenced the later self-deprecation, while neither self-worth nor self-deprecation affected peer alienation over time. Additionally, self-worth was found to influence the later self-deprec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peer alienation, self-esteem, self-worth, self-deprecatio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투고일: 2015. 6. 15, 심사일: 2015. 6. 26, 심사완료일: 2015. 7. 19

---

\* Seoul National University